제13회 OPEN AI NETWORKING KOREA 2026

ONK2026, AI 네트워크의 지식과 재미가 만나는 무대!

ONK2026이 개방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기술 교류에 나섭니다.
올해는 **배틀 형식을 도입하여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선정위원과 AI의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참석자 선호도를 종합하여 ONK 2026 배틀 대상을 선정합니다. 아울러 청중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발표를 가리는 발표 대상도 함께 시상합니다.

ONK는 전문 지식의 깊이뿐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풀어내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AI 네트워크 기술과 표준,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할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청중과 나누는 무대에 도전해 보세요.

참석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객석도 무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수상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발표 신청과 참가 등록을 바랍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0:00~18:00**
- **장 소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공동주최 AI네트워크포럼, AINA AI-SN 위원회**
- **공동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OSIA)**
- **프로그램 위원회**
  - 위원장: 조부승(KISTI)
  - 위원: 곽도영(KT), 김정헌(TTA), 김태연(ETRI), 두경환(ETRI), 류호용(ETRI), 박종한(SKT), 백선경(IITP), 윤승현(ETRI), 최보현(LGU+)

안내 사항

사전등록 마감: ~ 11월 18일(수)

등록비 및 입금계좌	회원사 (AI네트워크포럼, AINA)	무료	예금주: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신한은행: 140-010-895295 사무국 임혜림 대리 : lim@osia.or.kr
	비회원사	30만원	
등록방법	• 홈페이지(https://ainet.or.kr)의 "포럼 행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에서 비회원으로 등록 진행)		
참고사항	• 참석확인증은 행사 종료 후 이메일(sec@osi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PDF)는 행사 전 이메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밀번호는 현장에서 공개) • 행사장 주변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NK 2026 수상자를 맞히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세션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를 골라주세요

시상

- **표준화 배틀 → ONK 2026 배틀 대상 (ONK 최고상)**
- 고수들의 AI네트워크 이야기 · AI네트워크 핫 토픽 → 최우수발표상 · 인기상
- 배틀 대상은 선정위원 · AI · 청중이 함께 선정

경품



투표하면 추첨권 1장, 맞히면 1장 더 | 17:40 현장 추첨 | 중복 당첨 가능

시간	제목	좌장/발표자
Session 1: 고수들의 AI네트워크 이야기		**ETRI 류호용 실장**
10:00~10:10	프로그램 및 추첨권 안내	수석 간사(ETRI 두경환 책임)
10:10~10:40	디지털인프라 잠자는 기술 찾아깨우기 : 그 방법론과 9대 잠자는 미래기술	IITP 유영수 수석
10:40~11:10	위성 통신을 위한 Autonomous Network	삼성전자 김복근 수석연구원
11:10~11:40	AI가 다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할까?	ETRI 박찬성 선임연구원
11:40~12:00	환영사 및 기념 사진 촬영	상임의장 (ETRI 윤빈영 박사)
12:00~13:00	Lunch	
Session 2: AI네트워크 핫 토픽		**우리넷 박성혁 상무**
13:00~14:00 (1부, 통신사)	OSS TR 및 Autonomous Network	KT 옥기상 팀장
	Mobile Network as an AI Platform	LG U+ 안재현 책임
	AI와 네트워크의 융합: 네트워크 지능화에서 분산 AI 인프라로의 진화	SKT 박종한 팀장
14:00~15:00 (2부, Vendor)	통제 불능의 AI Agent 사고 예방: AI 네트워크 '탐지-대응-학습' 순환 보안의 실제	유클리드소프트 박주한 대표
	AI Agent의 암호 통신 무력화 경고: 양자 해킹에 대비한 PQC 네트워크 전환	대영에스텍 박춘걸 소장
	Network for AI & AI DC scaling	시에나코리아 김성준 부사장
	AI 시대의 네트워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아리스타네트웍스코리아 김혁 부사장
15:00~15:10	Break time	
Session 3: Global Top Standard Battle		**TTA 김정헌 팀장**
15:10~15:40	더 이상 새로운 표준은 없다! (AI 네트워크 표준)	ETRI 윤빈영 박사
15:40~16:10	AI를 연결할 것인가, AI를 이해할 것인가?(부제: 6G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둘러싼 표준화 논쟁)	LG전자 김현숙 책임
16:10~16:40	TBD	TBD
16:40~16:55	Break time	
Session 4. AI 네트워크 하이라이트		**KISTI 조부승 센터장**
16:55~17:10	TBD	SKT
17:10~17:25	AI Edge, 피지컬 AI를 움직인다	KT 정제민 상무
17:25~17:40	TBD	LG U+
17:40~18:00	시상식 및 경품 추첨	

제13회 OPEN AI NETWORKING KOREA 2026

- 일 시/장소 2026년 11월 25일(수) 10:00~18:00 /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공동주최 AI네트워크포럼, AINA AI-SN 위원회
- 공동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OSIA)

디지털인프라 잠자는 기술 찾아깨우기 : 그 방법론과 9대 잠자는 미래기술

IITP 유영수 수석

프랑스 그르노블 3대학 스탕달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B2G(Born 2 Global)를 거쳤다. 주된 연구 분야는 기술로드맵, 미래유망기술 수립 및 방법론 연구다. 최근 『지구와 지구를 넘어선 미래기술』을 출간했으며, 글로벌 국제공동연구 사업 기획연구,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기획연구, 기술분류체계 수립 및 기술성숙도(TRL) 개선방안 연구 등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 등 출간했다.

본 연구는 과거에 주목받았으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잠자는 기술(Sleeping Technology)'을 재발굴하고, 미래 가치와 활성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기획 방법론을 제시한다. 통신·네트워크, 전파·위성, 양자기술 등 ICT 기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AI 기반 논문 분석과 국내외 전문가 조사를 통해 9개 기술영역을 발굴하고, 특허·표준·시장·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9개 잠자는 미래기술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합 분석체계인 STIMULUS와 기술 활성화의 기회의 창인 Fenêtre 개념을 제안하여, 기술별 연구개발·실증·사업화 및 국제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의 성숙도뿐 아니라 미래 가치와 활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ICT R&D 기획 방향을 모색하고, IITP INPACE 중심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성 통신을 위한 Autonomous Network

삼성전자 김복근 수석연구원

현재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에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G/5G Core Network 개발을 수행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AI-native Core Network와 6G 선행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저궤도(LEO) 위성통신은 전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지상망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위성이 끊임없이 움직여 서비스 영역이 계속 바뀌고, 빔과 Feeder 링크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도심부터 해상·산간까지 흩어진 가입자를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기존 운영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며, 망이 스스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Autonomous Network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위성망의 자율운영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성이 gNB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위성망은 '움직이는 기지국'을 가진 망이며, 지상망에서 검증된 AI 기술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본 발표에서는 상용망에서 운영 중인 삼성의 Core AI 기술 네 가지를 소개한다. UPF 과부하를 미리 예측해 분산하는 User Plane Load Control, 서비스별 무선 자원을 동적으로 재분배하는 Slice Load Control, UE 위치 예측 기반의 Smart Paging, Core 이상을 탐지하고 자동 복구하는 Anomaly Detection & Restoration이다. 이 기술들은 클라우드 위에서 MLOps와 Agentic AI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대형 재난 상황의 위성망 시나리오에 이를 적용해, 위성 빔 자원 보호와 자율 복구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위성망의 Autonomous Network는 새로운 키워드보다, 지상망에서 검증된 기술을 위성 환경에 맞게 확장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AI가 다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할까?

ETRI 박찬성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TRI 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네트워크 제어평면, 경로계산, 네트워크 지능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2020년부터는 Google 공인 AI 전문가 그룹, 산업표준이 된 AI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한 Hugging Face Fellow,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과학분과 위원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기술 구현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해해야 할 기술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출발해 MLOps, AI 모델 연구, 자율 네트워크 제어 및 신뢰성 평가로 영역을 확장해 온 경험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AI 네이티브 네트워크에서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AI 모델의 학습과 동작 원리,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AI 시대에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핵심 전문성과 기술 확장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AI가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일수록,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함께 검증하는 협업이 왜 더욱 중요해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OSS TR 및 Autonomous Network

KT 옥기상 팀장

T재 KT 네트워크부문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5년부터 SDN/NFV 분야에서 ITU-T 및 ETSI 국제 표준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Autonomous Network 기반 OSS Transformation 과제를 리딩하고 있다.

AI, 6G 시대를 대비해 대부분의 Telco들은 OSS Transformation과 자율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Telco 들의 OSS Transformation 배경과 목표, 그리고 Autonomous Network의 핵심 기술인 AI, Intent, Closed-loop 제어 및 적용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통신망운용관리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TMForum의 Autonomous Network Maturity Model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구조와 평가 기준에 대해 Level 4 취득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본다.

제13회 OPEN AI NETWORKING KOREA 2026

- 일 시/장소 2026년 11월 25일(수) 10:00~18:00 /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공동주최 AI네트워크포럼, AINA AI-SN 위원회
- 공동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OSIA)

Mobile Network as an AI Platform

LG U+ 안재현 책임

현재 엘지유플러스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5G-Advanced 및 6G 네트워크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WiMAX 기지국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WiMAX, Wi-Fi 6, LTE/NR의 링크레벨 및 시스템레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IEEE WiMAX/Wi-Fi 6, 3GPP LTE/NR/6GR, O-RAN nGRG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5G까지 네트워크는 AI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에 가까웠지만, 6G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수인 대화형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네트워크가 AI를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진화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AI for Network와 Network for AI의 두 축으로 나누어 LG유플러스의 6G 비전(SIX)과 함께 소개한다. 먼저 AI for Network 분야에서는 RAN, 코어, 망 관리 영역의 AI-in-Network 표준화 동향과 사업자 관점의 과제를 살펴보고, TM Forum 인증을 받은 자율 네트워크 분야의 자사 성과를 공유한다. 이어서 Network for AI 분야에서는 연결성(Connectivity), 컴퓨팅(Computing), AI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진화 경로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풀어야 할 기술 및 표준화 이슈를 함께 다룬다.

AI와 네트워크의 융합: 네트워크 지능화에서 분산 AI 인프라로의 진화

SKT 박종한 팀장

현재 SK텔레콤 유선Tech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4년부터 SK텔레콤에서 NFV/SDN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5G Core Network 및 LLM/RAG 기반 AI 서비스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AI와 6G 네트워크의 융합을 중심으로 AI-Native 네트워크, 네트워크 지능화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지식의 활용 방식과 산업의 가치 창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AI 추론 및 Agentic AI의 확산으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와 전력/공간 등 물리적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 AI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AI for Network와 Network for AI의 양방향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AI 시대의 산업 및 인프라 변화를 살펴보고, AI, 컴퓨팅, 네트워크의 융합 방향과 미래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기술적 고민을 공유하고자 함. 특정 솔루션이나 아키텍처를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기술 발전 방향을 열린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함.

통제 불능의 AI Agent 사고 예방: AI 네트워크 '탐지-대응-학습' 순환 보안의 실제

유클리드소프트 박주한 대표

현재 (주)유클리드소프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년간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했고, 2020년부터 AI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 개발 등 연구 · 구축 과제 12건을 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온디바이스 AI 모델의 정보 유출 방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AI 보안 진단 제품 SECUAI GUARD를 출시했다. 신경망 모델 암호화 특허 2건(출원 포함)과 논문 2편이 있고, 2023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통신사와 장비 업체가 네트워크 운영에 AI 에이전트를 붙이기 시작했다. 에이전트는 장애 티켓과 로그, 장비 설명, 외부 문서를 읽고 스스로 도구를 실행한다. 문제는 읽은 글 가운데 한 줄이 명령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는 경로 세 가지(읽은 글에 숨은 지시, 과한 권한, 여러 차례에 걸친 유도)를 모의 공격 기록으로 보여 준다. 이어 공격으로 약점을 찾고, 방어 장치를 적용하고, 고친 뒤 다시 재서 다음 공격과 방어에 반영하는 탐지, 대응, 학습 순환을 소개한다. 특히 한국어 환경에서 안전장치를 실측한 결과를 공유한다. 탐지 점수 1위인 장치가 정상 요청까지 전부 차단한 사례와, 방어율만 보고 자동화를 돌렸다가 정상 요청 대부분을 거부하게 된 자사의 실패 사례를 통해, 탐지율은 오탐률과 함께 재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AI Agent의 암호 통신 무력화 경고: 양자 해킹에 대비한 PQC 네트워크 전환

대영에스텍 박춘걸 소장

KT 네트워크 연구소에 2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대영에스텍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방분야 양자내성암호 전환 시범사업 총괄 PM으로 양자내성암호(PQC)기반 네트워크 보안 전환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16개 금융사를 겨냥한 연쇄 침해사고는 공격자가 'AI 에이전트'를 악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화된 취약점 탐색과 대규모 개인정보 탈취를 감행할 수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지능화된 AI 에이전트가 공격 도구로 쓰이는 환경에서,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Q-Day)까지 결합된다면 현재 네트워크 보안의 근간인 RSA, ECC 등 공개키 기반 통신 채널과 인증 체계는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특히 지금 암호화된 트래픽을 미리 수집해 두고 사후 해독하는 SNDL(Store Now, Decrypt Later) 위협으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 유효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AI 네트워크 연구자 및 인프라 엔지니어를 위해 복잡한 암호 수학 대신 네트워크 시스템 관점에서의 PQC(양자내성암호) 전환 필요성과 기술적 병목을 짚어봅니다. PQC 적용 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키/서명 크기 급증(수 KB 단위), 패킷 단편화(MTU 분할), 세션 핸드셰이크 지연 등의 실무적 과제를 분석하고, 안전한 AI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드 검증 및 단계별 PQC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제언합니다.

제13회 OPEN AI NETWORKING KOREA 2026

- 일 시/장소 2026년 11월 25일(수) 10:00~18:00 /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공동주최 AI네트워크포럼, AINA AI-SN 위원회
- 공동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OSIA)

Network for AI & AI DC scaling

시에나코리아 김성준 부사장

현재 Ciena North Asia 지역에서 Sales Engineering Director(한국 타이틀은 부사장)로 재직중
국내/외 다수 통신 솔루션 설계, 제조업체에서 주요 통신 사업자 및 기업용 광통신 네트워크 설계,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 29년 경력

AI Farm, AI Factory에서 최적 운용, 최고 성능 구현을 위해 GPU 클러스터간 초고속, 저지연 back-end, front-end connectivity 요구사항 및 global DC networking 동향 등 발전방향 공유
Infra와 App/Tool등에서 거대 매출 창출을 위한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거대 네트워크 Infra 투자철학과 전략 분석 및 선()투자의 중요성과 global hyperscaler들의 동향을 통해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제언
Ai era에서 massive capacity에 대한 요구 증폭과 이로 인해 대두된 전통적 네트워크 인프라의 한계점과 LLM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전송 요구 수용의 과제와 Shannon's traffic limit에 따른 capacity 증대 및 미래형 Infrastructure(for machine & human) 준비를 위한 industry 과제 및 global 신 기술 동향, 네트워킹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 등을 공유하고자 함

AI 시대의 네트워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아리스타네트웍스코리아 김혁 부사장

시스코 시스템즈 컨설팅 엔지니어 (2000~2016)
아리스타 네트웍스 SE 총괄 매니저 (2017~현재)

AI 시대에는 GPU의 성능뿐만 아니라 GPU 간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AI 인프라 시장이 기존 InfiniBand 중심에서 개방형 Ethernet 기반으로 확대되는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AI 네트워크에 필요한 고속 데이터 전송, 손실 및 지연 최소화, 지능형 트래픽 분산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한 Arista Networks의 고성능 Ethernet 솔루션과 네트워크 계층 단순화 전략을 통해 AI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Arista의 기술적 차별성, 그리고 향후 AI 인프라 사업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표준은 없다! (AI 네트워크 표준)

ETRI 윤빈영 박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전문위원 및 ㈜우리넷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5년부터 SDN 및 AI 네트워크 분야에서 ITU-T SG15와 IETF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AI네트워크포럼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1865년 국제전신연합에서 시작된 통신 표준화는 오늘날 SDN, AI, 디지털 트윈, 자율 운용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실제로 채택되어 사용되는 표준 중 상당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보다는, 오랫동안 검증된 기존 표준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결과이다. 본 발표에서는 그 사례로, 전달망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약 25년 전부터 활용되어 온 ITU-T G.7710의 성능 데이터 수집 기능 요구사항을 AI 네트워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YANG 데이터 모델로 발전시켜 IETF에 표준으로 제안한 과정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실용적인 표준은 새로운 키워드를 앞세우기보다, 기존 표준들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AI를 연결할 것인가, AI를 이해할 것인가?(6G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둘러싼 표준화 논쟁)

LG전자 김현숙 책임연구원

현재 LG전자 C&M표준연구소 표준화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부터 3GPP 4G/5G 이동통신 시스템 구조 및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6G 시스템 구조 및 AI 네트워크 관련 표준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3GPP 6G 표준화에서는 AI를 위한네트워크 구조를두고 다양한아키텍처 옵션들이경쟁하고 있다. 일부는 네트워크연결 제공자본연의 역할을강조하고, 일부는 AI를 이해하는 AI-aware Network를 지향하며, 또 다른접근으로 네트워크, 컴퓨팅, 데이터, 센싱을 통합한 AI 플랫폼으로의 진화를제안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실제 글로벌 기업들과 표준화 단체들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왜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AI Agent, Intent, Data Framework 등 최근 6G 표준화의 핵심 이슈를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적 논쟁의 배경 및 산업적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본다.

제13회 OPEN AI NETWORKING KOREA 2026

- 일 시/장소 2026년 11월 25일(수) 10:00~18:00 /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공동주최 AI네트워크포럼, AINA AI-SN 위원회
- 공동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OSIA)

TBD

LG U+ 정형록 책임

TBD

TBD

TBD

SKT

TBD

TBD

TBD

KT 정제민 상무

현재 KT 미래네트워크Lab에서 네트워크 AI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1996년 KT 무선통신연구소 입사 후, 3G-4G-5G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 5G 코어, MEC 개발 실증 및 AI 기술 연계에 대해 R&D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AI Network Alliance(AINA) 산업 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음.

피지컬 AI 1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AI Edge가 갖는 의미와 제공 가치, KT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소개한다.

TBD

LG U+

TBD

TBD